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상주보

2016년 5월 1일 (다해)

부활 제6주일

제1587호

예수 그리스도, 성 소피아 대성당 모자이크 벽화, 이스탄불,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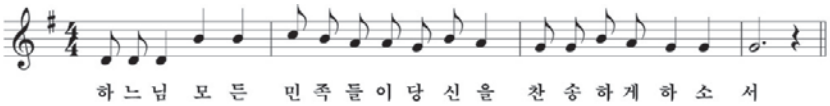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3.27)

[제1독서] ····· 사도행전 15,1-2.22-29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21,10-14.22-23 〈또는 22,12-14.16-17.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 요한 14,23-29〈또는 17,20-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 봉헌성가: [332] 봉헌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244] 성모의 성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26절)

사랑의 초보 단계는 ‘나만을 향하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시기하는 자신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의 저는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친구는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나도 그 친구만을 챙겨야 하는 구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성숙하면 ‘나와 너’에서 그 다음 단계인 ‘우리’라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 친구를 아끼지만 다른 사람도 내 친구를 아낄 수 있고 또 내 친구도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챙길 수 있다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관계에서 오는 소유와 시기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성숙한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성령과 아버지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당신이 아버지와 일치하듯 또한 제자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일치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시지만 당신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당신 죽음 앞에서 혼란스럽고 흩어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모이기를 바라시며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주님께서는 천상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듯 우리도 또한 초대하십니다. 그 영광된 하느님 나라를 요한 묵시록 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묵시 21,23)

Father Chung’s Homily

“The Holy Spirit that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Jesus gave the disciples his new commandment: Love each other. The power of love comes from the love for the Lord. Jesus said, “Whoever loves m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dwelling with him.” About the power of understanding the teachings of the Lord and living according to the teachings, Jesus told them,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that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he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remind you of all that I told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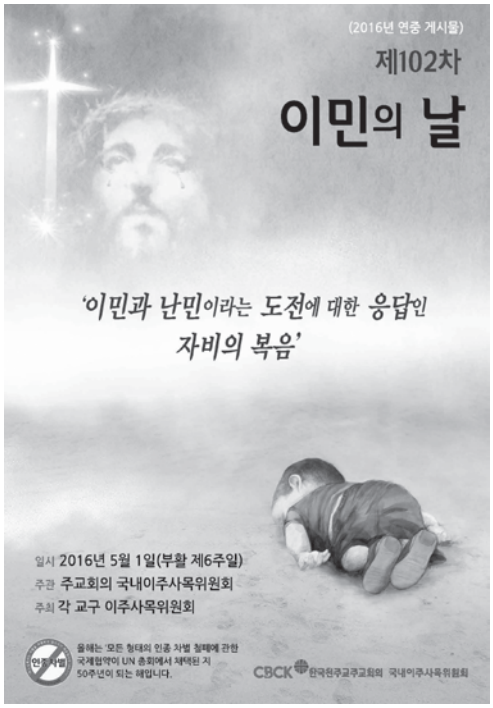
The first stage of love is the love toward only me. When I was young, I had a friend I liked. I was jealous when I knew the friend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 friend. At that time, my mind was full of only me. I thought and cared only about that friend and I wanted him also only to think and care about me.

When the love becomes more matured, the relationship turns from ‘only you and me’ into ‘us’: I like my friend, but other people can also like the friend; and my friend can also like not only me, but other people. It is the stage of overcoming possessiveness and selfishness.

Jesus expanded his relationship with the disciples into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Holy Spirit, and the Father. Jesus promised them about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nd he wanted them in the unity with the Father as he is in the unity with the Father. Jesus wanted them in the unity themselves and said to them, “Peace –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it to you.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or afraid”.

Jesus invites us to the Holy City of Jerusalem as he invited his disciples. The Revelation says, “The city had no need of sun or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ave it light, and its lamp was the Lamb.”

이민과 난민이라는 도전에 대한 응답인 자비의 복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자비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자신이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뚜렷한 표지가 되도록 부름 받을 때가 있습니다"(칙서 '자비의 얼굴', 3항). 실제로 하느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르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품에 기꺼이 안긴 사람들이 스스로 팔을 벌려 다른 이들을 감싸는 팔이 되게 하여, 모든 이가 어린이처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인 인류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듯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자기 양떼와 함께하는 목자처럼 모든 이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다치거나 지치거나 병든 양들을 특히 더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굽어보시면서 그들의 처지가 비참하면 할수록 당신의 자비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고향을 떠나는 이들은 다른 개인과 공동체를 마주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도전이 되고 때로는 자신이 접하는 문화적 사회적 지평을 흔들어 놓습니다. 폭력과 빈곤의 희생자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여정에서 인신매매범들의 비인간적 만행에 점점 더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학대와 역경을 이겨낸다고 하여도 의심과 두려움이 깃든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이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수용을 관리하고 장단기적 통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투명하고 현실적인 규정의 부족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자비의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타인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비의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대신덕을 바탕으로 한 응답 방식을 알려줍니다. 이는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저는 2016년 세계 이민의 날 주제를 **이민과 난민의 도전에 대한 자비의 복음의 응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주의 흐름은 이제 구조적인 현실이기에 계획을 세워 현재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으로 이주의 원인, 이주에 따른 변화, 그리고 사회와 민족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주의 영향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억압, 기아, 폭력, 난파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무관심하게 침묵한다면 우리는 공범이 되고 맙니다. …

무엇보다도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선물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주신 자비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준 희망에 대한 기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하여 자비는 다른 이들과의 연대를 촉진하고 강화합니다. 이 연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로마 5,5 참조)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에 맞갖은 응답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들의 지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만을 따지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들의 존엄이 보장되면 그들은 모든 이의 행복과 진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한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수용국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도움을 줄 때에 그러합니다. 이주는 그 정치와 입법의 측면이나 경제적 영향, 또는 한 지역 안의 다양한 문화들의 단순한 공존의 문제로만 축소해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수호와 증진, 만남의 문화, 민족들의 일치를 도모하는 데에 서로 보완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비의 복음이 인류 전체의 쇄신과 변화의 길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민과 난민 여러분! 자비의 복음의 뿌리에서, 다른 이들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느님 자비의 경험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과 난민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와 이집트를 향한 고통스러운 이주를 체험하신 요셉 성인께 여러분을 맡겨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민들을 사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돌보는 데에 많은 힘과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는 이들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전구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전해드립니다.

What Happened in our St. Paul Chung Sunday School?

CCD OpenClass

On April 23, St. Paul Chung Sunday school opened their classroom to the parents.
Parents were so delighted and proud to see what their children were learning at the school, and they gave big applaud to all the teachers for their big effort.

▲ Kindergarten : The Holy Spirit

▲ 2nd : Communication with God through prayer & 10 Commandments

▲ 6th : Friendship

▲ 7th & 8th : Today's readings and covered upcoming Ascension

▲ 1st : Mary

▲ 3rd : Celebrating Mass

▲ 4th : Presentation about the baptized name and & discussion of gospel

▲ 5th : Review from the last few months of lessons & making rosary bracelet with parents

ANNOUNCEMENTS

1 St. Paul Chung Sunday School hosts Annual Conference

- **When** : May 4, 2016 (Wed 8pm-9:30pm)
- **Where** : Hasang building

2 First Communion Class Workshop

- **When** : May 7, 2016 (Sat 2pm-4pm)
- **Where** : Hasang building

CYO Lock-In

On April 22, CYO students gathered at church for the Spring lock-in. The theme of the lock-in was individuality and various activities involved students reflecting their own selves and exploring the differences among their peers.

PTO parents were very gracious to prepare dinner and joined their children in some of the activities. A few highlights of the evening were sharing three big life events that shaped who they are today and preparing skits that incorporated the theme of individuality. Throughout the night, as the students shared their stories and personality traits, they learned to become more accepting of themselves and also of others who were different.

◆ 엠이(M.E.)

ME 월례회가 지난 23일(토) 오후 7시에 노응홍(아브라함) 노월승(소피아) 부부 집에서 열렸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랑'을 주제로 나눔을 가진 데 이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미 동북부 제 71차 주말 부부 모임'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 울뜨레야 모임

지난 22일(금) 오후 8시에 친교실에서 50여명의 꾸르실리스따가 참석하여 4월 울뜨레야 모임을 가졌다. 곽노덕(도미니코) 간사의 사회로 복음 낭독 및 '하느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묵상하고, '꾸르실리스따로서의 생활'에 대해 나눔을 가졌다. 또한 '미 동중부 남성 제17차 꾸르실료' 피정(4월 28-5월 1일, 볼티모어 성당) 참석자에 대한 기도와 차량 봉사 등을 논의했다.

◆ 바오로회 자매회

바오로회 자매회는 지난 22일(금) 오후 8시 친교실에서 11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 모임을 가졌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요한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나누었다.

한 자매는 남편과의 육아 분담에서 서운했던 점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말씀을 떠올리며 이해타산이 없는 헌신적 사랑으로 합일점을 찾고, 다른 자매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물 뿐이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겠다'는 묵상을 나눴다. 회원들은 이날 처음 나온 두 명의 회원을 환영하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성모성월/

성모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바오로딸 콘텐츠

요한회 주최 친선 골프대회

요한회는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성당 근교 사우스라이딩 골프 클럽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한 이 날 대회에는 루카회원, 베드로회원, 요한회원, 그리고 주보의 공지사항을 보고 참가한 신자 등 51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요한회 회원이자 버지니아 한인 골프 동호인들도 인정하는 실력을 지닌 김용현(요한) 형제는 생애 두 번째 홀인원을 기록하여 참가자 전원의 축하를 받았다.

경기 후에는 성당의 친교실에서 경기 참가자 전원과 비참가 회원, 그리고 행사 진행을 도와준 레지오 마리애의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 날 대회는 본당 교우 40대부터 60대까지 참가, 한마음이 되어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공지사항

1 2016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5월 15일 (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윷놀이 및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5월 1일 (일) 오전 11:30 (B-1, 2)

3 성모희 임원회의

- 일시 : 5월 1일 (일) 오후 1:00 (B-1, 2)

4 병자 영성체

- 일정 : 5월 6일 (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 264-0050

5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불우 이웃 돕기 일환으로 야드세일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 5월 21일 (토), 5월 22일 (일)
- 물품 기증 :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강동훈 요한 (703) 585-2700

6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 5월 1일 (일)까지
- 준비 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 혼례증서
- 장소 : 성당 입구 안내 데스크
- 문의 :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7 견진 교리 및 견진예식 일정

- 견진 교리 : 5월 10일, 11일, 12일
- 교리실 장소 : 하상관
- 견진성사 예식 : 5월 15일 (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 알링톤 주교좌 성당

8 2016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 5월 7일 (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 워싱톤 D.C National Shrine
- 참가 등록 : 친교실 (선착순), 차편/점심 제공
- 문의 : 허진 (703) 376-1372

9 2016년 미동부 성령대회

- 일시 : 5월 29일 (일) 오후 2시-9시,
  5월 30일 (월)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문의 : 김 그라시아 (703) 229-7928

10 M.E 미 동북부 제71차 주말 부부 모임

- 미 동북부 M.E에서 주말 부부 모임을 초대합니다.
- 접수 : 친교실 미사 후
- 일시 : 5월 28일 (토) 오후 7시 - 5월 30 (월) 오후 5시
-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Newark NJ
- 문의 : 김영술 김생금 부부 (703) 477-2446,
  노응홍 노월승 부부 (973)255-7344

11 성 정바오로 성당 청소년 장학금(2016-17)

- 자격 조건 : 대학 진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
- 장학 금액 : $1,000
- 신청 마감 : 5월 29일 (일)
- 장학금 전달 : 6월 12일 (일) 오전 10시 미사중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주일 오전 8시 미사 반주자

- 8시 미사 반주자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성헌 로베르또 (703) 569-7840
  정재민 미카엘 (703) 989-6283

13 알링턴교구 다민족 공동체 음악회

- 음악회 일시 : 5월 21일 (토) 오후 5시
- 장소 : Bishop Irenton High School
  (201 Cambridge Rd, Alexandria)
- 문의 : 노혜란 (301) 335-2532
- 합창 연습 : 매주 금요일 8시, 성가대 연습실
- 여러 나라 언어로 부르는 다민족 음악회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4 5월 성물부 세일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는 성상, 고상, 묵주를 20% 세일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15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주문 접수

- 신청 : 성모회, 장 에디타 (703) 973-7159

♡ 4 복음서 필사 노트 전시 ♡

4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복음)
필사노트를 9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쓴 필사 노트는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1차)과 2015년(2차)에 성경 통독을
마친 신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양식서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학교가 5월 4일 (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5월 1일(일)	부활 제6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청소년 사도회(13:00, B-3,4) 성모회 임원회의(13:00, B1,2), 꾸르실료 환영식(16:00, 친교실)
2일(월)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3일(화)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레지오 마리애(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하상성인학교(9:30, 하상관,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4일(수)	부활 제6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애(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5일(목)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6일(금)	부활 제6주간 금요일	병자 영성체, 회장단 회의(10:00),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친교실)
7일(토)	부활 제6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애(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하상관), 아태계 성모성지순례, 파티마 사도직 셀모임(B-4, 오후 6시), 첫영성체반 워크샵(16:00), 파티마 첫 토요 신심(18:15)
5월 8일(일)	주님 승천 대축일	단체장회의(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4), 복사단 모임(12:40, B-1,2), 주일학교 교사회의(13:00)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5월 5일(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행복 특강 :** 신앙의 눈으로 행복의 비결을 듣는 황창연 신부의 특강 시리즈 3편
- **인물 에세이 :** 10편이 넘는 찬양 음반을 낼 정도로 '찬미 봉사'로 알려진 원영배 아오스딩 종신부제의 이야기

5월 6일(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 마르코 복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4월 24일 (부활 제5주일)

주일헌금	$ 7,725.00
교무금	$ 8,765.00
교무금(신용카드)	$ 5,200.00
특별헌금	$ 640.00
2차 헌금	$ 2,511.00
합계	**$ 24,84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5월 1일	애난데일 1
5월 8일	애난데일 2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벅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딩),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전성호(세례자 요한),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쉘(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최정길 씨 자: **최 Stephen Jae 스테파노**
◈ 김기철 씨 녀: **김보휘 벨라뎃따**

- 일시: 2016년 5월 14일 (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요.

RE/MAX Gateway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융자, 재융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Chantilly/South Riding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Washington New Star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 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COLUMBIA COLLEGE** 연방정부 학비보조 가능 admissions@ccdc.edu 703-206-050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LED Lights** 매장창문, 건물라인 쇼케이스 및 진열장 쿨러, 간판, 형광등 설치·판매 773-931-123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델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Greenway Funding** 주택융자, 재융자 제이슨 리 703-851-580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Kitchen, Deck Sunroom**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확신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 부동산** 이창호(어거스틴) 571-455-0768	**J C Provision**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703-625-1007	**HYUNDAI 자동차** 챈틀리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